

【특 집】

김창걸 해방 후 소설에서 보이는 ‘국민(nation) 상상

최 일*

┃ 차 례 ┃

- I. 서론
- II. ‘만주 로컬리티(locality)’의 허구성과 김창걸의 선택
- III. ‘새로운 마을’의 탄생
- IV. ‘새로운 인간의 자리매김
- V. 결론

국문초록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 모두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이다. 우선,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단에서 등단하여 『만선일보』를 통해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였고 만주조선인문학에 유일한 소설집 『씩트는 대지』에 작품이 수록될 만큼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다음,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단에서 활발할 활동을 하던 문학인들 중 해방 이후 한국으로 귀환을 하지 않은 몇 되지 않는 문인이었다. 김창걸은 만주의 조선인 즉 민족(ethnic group)에서 국민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nation)로 거듭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직후 창작된 김창걸의 단편소설 「새로운 마을」과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는 ‘nation + ethnic’ 그룹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나온 유수의 작품 중 두 편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만주조선인문학’에서 있었던 ‘로컬리티담론’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김창걸의 상기 소설에서 보이는 국가상상과 국민상상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김창걸, 민족, 국민, 상상

I. 서론

만주조선인문학에서 있어서 김창걸은 여러모로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단에서 등단하여 꾸준하게 활약을 한 몇 되지 않는 진정한 ‘로컬(local)’이다. 문턱이 낮았던 만주조선인문단에서 『만선일보』에 작품 한 편 발표하고 이른바 ‘등단’을 한 경우가 물론 적지는 않았지만 김창걸 만큼 지속적이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였고 또 만주조선인문학에 유일한 소설집 『씩트는 대지』에 작품이 수록될 만큼 문단의 인정을 받은 만주 본토 출신 작가는 많지 않다.

다음,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단에서 활발할 활동을 하던 문학인들 중 이학성(李鶴城, 즉 李旭)과 함께 ‘광복’ 이후 반도로 귀환을 하지 않은 흔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귀환을 하지 않은 이유와 사정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만주조선인작가들이 ‘광복’이 되자 귀환을 선택한 반면 함북 명천 출신의 김창걸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돌아가지 않아 진정한 ‘로컬’로 남게 된다. 즉 김창걸은 만주라는 장소에 살던 조선인 즉 민족(ethnic group)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족’이라는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김창걸은 아직도 논란거리인 만주조선인문학의 귀속문제, 바꿔 말하면 만주조선인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 사이의 연속성 혹은 내재적 연관성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표본이 된다. 만주조선인문학을 ‘중국조선족문학의 전사(前史)’로 보는 것이 중국 내 조선족학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인데 이럴 경우 양자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제외 하고는 문학 내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주장할 만한 작가가 김창걸과 이학성을 제외 하고는 별로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게다가 김창걸은 ‘조선족’으로의 신분 전환을 완성한 후 창작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1959년 ‘민족정풍(民族整風)’ 중에 ‘민족주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온 김창걸은 오랫동안

작품을 발표할 수가 없어 1954년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편집, 출간한 단편소설집 『세전이별』¹⁾에 수록된 「새로운 마을」과 「행복을 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 「마을의 승리」 등 몇 편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작품 활동이 없었다. 단편소설집 『세전이별』은 1954년 ‘연변문란’ 즉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편찬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편찬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묶은 단행본 작품집으로 ‘중국조선족문학의 초기성과들에 대한 점검이고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 작품집에는 14명 작가의 15편의 단편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는 바 유독 김창걸만이 두 편의 작품이 1번, 2번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이 두 편의 작품이 당시 문단 혹은 평단의 긍정과 주목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료녕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김창걸단편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말을 빌면 전부 해방 전에 발표되었거나 창작되었지만 유실되어 해방 후 작가의 기억에 따라 ‘복원된 작품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후일 원작이 발견된 「암야」와 「낙제」 두 작품을 보면 해방 전의 작품에 비하여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서 유추를 해보면 나머지 작품들도 해방 전 작품의 기본적인 모티프는 유지하면서 윤색과 개작을 거친 것들임을 알 수 있지만 이들 작품을 해방 후의 완전히 새롭게 창작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직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 두 편의 작품-「새로운 마을」과 「행복을 이는 사람들」이 1945년의 광복에서 1953년의 ‘조선전쟁(6·25전쟁)’의 결속까지, 바꾸어 말하면 ‘조선족’이라는 ‘nation + ethnic’ 그룹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나온 유수의 작품 중 두 편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세전이별』, 연변교육출판사, 1954년.

2) 『세전이별』에 앞서 출간된 단행본 작품집으로는 『군공메달』, 『새집 드는 날』, 『뿌리박은 터』 등이 있지만 모두 김학철 한 작가의 작품집이다.

이 시기는 만주를 포함한 중국의 조선인들이 귀환과 정착의 분화를 거치던 시기였고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대내적으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낸 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과 대외적으로 ‘조선전쟁’의 참전은 만주조선인들의 귀환과 정착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요소로 된다. ‘토지개혁’으로 절대다수가 농민인 만주조선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생존기반인 토지를 획득하게 되었다면 ‘조선전쟁’은 한반도의 적대(敵對)적 분단을 고착화시키면서 만주조선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신생국가에로의 귀속감 혹은 국민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미를 장식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염상섭과 같은 만주에서 한반도로 귀환한 작가들에 의한 ‘귀환서사’가 있었다면 귀환이 아닌 새로운 ‘국민’으로의 정착을 선택한 김창걸은 ‘정착서사’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창걸의 상기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정착서사’의 한 단면 즉 ‘만주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의 ‘국민 되기’의 한 단면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II. ‘만주 로컬리티(locality)’의 허구성과 김창걸의 선택

어느 연구자의 통계에 의하면 만주를 거쳐 간 한국인 작가의 수는 137명에 달한다고 한다.³⁾ 『싹트는 대지』의 편집자인 신영철은 1941년 출간된 『싹트는 대지』의 발문에서 이들 조선인작가들을 “팽이와 호미로 생활을 개척하기에 피와 땀으로 엮은 역사를 수록할 것은 이곳에서 성장한 또는 뒤이어 들어온 문화부대에게 책임이 있다”⁴⁾고 하면서 이들을 “문화부대(文化部隊)”라고 칭했다.

3)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고 권철(權哲)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만주지역에 생활했던 한국인작가들의 수는 137명이라고 한다.

4) 신영철(申瑩澈), 1941, 『『싹트는 대지』뒤에』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출판부.

이들이 만주에 정착을 하고 이른바 '만주조선문학'을 건설했다. 일간지 하나, 소설집 두 권, 시집 두 권, 종합작품집 두 권으로 규모는 지극히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주조선문학'이란 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같다.

『만선일보』에서는 1940년 1월 12일부터 1940년 2월 6일까지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안(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이라는 지상토론을 진행했다. 황건, 박영준, 현경준, 안수길, 신서야 등 당시 만주조선인문단에서 존재감이 뚜렷했던 작가들이 참여하여 "滿洲에 朝鮮文學을 建設하라면 어떤 方面, 어떤 角度에서 어떤 形式 어떤 手法 等等으로 着手하여 開拓해나가기야될까"⁶⁾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렸다. 만주조선인문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 만주조선인문학의 역사와 전통, 조선인문단의 건설, 작가의 대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논제는 단연 만주조선인문학의 성격, 즉 '로컬리티(locality)'의 문제였다.

이 지상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황건(黃健)이 우선 만주조선인문학이 '만주 로컬리티'를 갖춰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滿洲朝鮮人文壇이 朝鮮文壇의 그대로의 延長이여서는 안되며 쌀아서 地方的 役割에 止쳐서는 안된다는 眞意가 있는것이 滿洲朝鮮文學이 뜻까지『朝鮮文學』이며 滿洲에 와있는 滿洲國鮮系國民 卽 滿洲朝鮮文學人만 이 이룰 수 있는 文學이다. 다시 말하면 滿洲라는 國家와 그 歷史와 特異한 性格만이 가질 수 있는 獨自的 文學 卽 滿洲文學이어야할것이며 그러기爲 하여서는 朝鮮文學의 傳統을 가장 잘 消化攝取하여야만 될 것이다. 이로써 만 비로서 그의 圓滿한 成就가 期待될 것이다.”⁷⁾

황건은 우선 만주조선문학이 만주조선인들의 삶의 기반에 뿌리를 내린 문학 즉 만주의 지역성을 구현한 문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서 '조선

5) 1973년 7월 4일 자 『동아일보』의 기사 「문단 반세기」에 따르면 신영철이 『재만수필선(在滿隨筆選)』(1939년)을 편집, 출간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만주조선문예선』의 오기인 것 같다.

6) 1940년 1월 12일 자 『만선일보』,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의」, 편자 안(案).

7) 황건(黃健), 「滿洲朝鮮文學의 特殊性」,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2」, 『만선일보』, 1940년 1월 13일.

문단에 대한 만주조선인문학의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고 있다.

“일찍히 成長의 滋養을 바다 呼吸의 始初를 이루엇든 朝鮮文壇에의 鄉愁는 이곳 滿洲朝鮮人文學의 悲劇的 運命觀을 清算 못한 데서 더 致命的 이엇든 것이다. 文學修練의 目標를 朝鮮中央文壇에의 進出에 두고 그곳에서 의 가까운 榮華를 憧憬하여왔든 나머지 이곳 滿洲에서의 活動實踐이라든지 自身이 接息코 잇는 이곳 文壇에 留意함에서의 더한 價値며 意義도 생각함이 업시 文壇建設에의 모든 意慾을 喪失 忘却케 되엇든 것이다. 朝鮮文壇에는 조흔 作品을 보내면서도 이곳에서는 그 나머지 創作을 부쓰러움 업시 發表하거나 朝鮮에는 發表하나 이곳에는 發表치 안는 이러한 조치 못한 傾向도 이 한가지로 解釋될 것이었다.”⁸⁾

신서야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만주조선인문학이 ‘만주국(滿洲國)’의 문학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어데까지던지 公明한 政治를 理想으로 한 獨立國으로 各民族이 똑 갖치 王道政治에 參劃하여 協和會 安居樂業의 新天地를 開拓할 歷史의 使命을 가진 前代未曾有의 國家에서 個別的으로 비단 朝鮮文學만을 分離하여 形成할 수 잇슬가?”⁹⁾

상기 인용문에서 작가가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첨가한 “공명한 정치를 이상으로 한 독립국” 운운 등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을 감안하더라도 만주조선인문학을 ‘만주국의 문학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의 황건이나 신서야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작품을 통해 이른바 ‘북향정신(北鄉精神)’을 설파하는 등 만주조선인작가들 중 만주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데 가장 주력했던 안수길(安壽吉)은 실제적인 창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8) 황건(黃健), 「滿洲朝鮮人文學의 今後 發展策」,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3」, 『만선일보』, 1940년 1월 16일.

9) 신서야(申曙野),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15」, 『만선일보』, 1940년 1월 30일.

朝鮮中央文壇 進出의 大望도 조타. 日本文壇 進出의 大望도 조코 世界文壇 進出의 野望은 더욱 조타. 이런 노픈 水準을 目標코 文學工夫와 活動을 하는 것이 男兒의 本懷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目的을 遠大하게 다지는 目標가 될지언정 여기에 秋毫만한 虛榮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滿洲에서 文學的 活動을 堅實하게 하여 나가 는 곳에 朝鮮, 日本, 世界文壇 進出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된다.¹⁰⁾

상기 지상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만주조선인문학의 터줏대감 격이었던 염상섭도 '만주 로컬리티'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다만 滿洲國國民으로서 滿洲生活을 描破한 文藝作品인 다음에는 朝鮮語文으로 써온 것일지라도 훌륭한 滿洲文學이요, 滿洲文學이면야 滿洲의 文壇에 먼저 보내야 할 은 當然한 일이며, 또 滿洲藝文界로서도 먼저 받아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朝鮮文으로 쓴 것이라야 하야 在滿朝鮮인이 끼고 돌 것도 아니요, 滿洲文壇을 제쳐놓고 먼저 朝鮮文壇으로 다라 나서는 義理가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萬一 滿洲의 藝文界가 朝鮮文作品이라 하야 無關心한다면 非違는 藝文壇에 있다할 것이니, 滿洲藝文壇도 반듯이 好意로써 마저줄 것을 믿는다.”¹¹⁾

그런데 이처럼 정열적으로 만주조선인문학 더욱이는 '만주 로컬리티'가 부여되어있는 만주조선인문학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던 문인들이 '광복' 이후 거의 전부가 한반도로의 귀환을 선택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만주 로컬리티'의 허구성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만주 로컬리티'는 비슷한 시기 한국 국내에서 논의되었던 '국민문학'의 허구성과 많이 닮아있다. '국민문학'은 한국문학이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에 의한 글쓰기를 통하여

10) 안수길, 1940년 2월 3일 자 『만선일보』, 「文學建設의 具體案과 文學人的 迫力的 活動」,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19』.

11) 염상섭, 위의 글.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에 의하여 허구된 ‘국민문학’이라는 질서 속에 편입됨으로써 ‘선계(鮮係)’ 혹은 ‘외지(外地)’라는 로컬리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내지문학’ 즉 일본 본토의 문학에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만주라는 장소적 상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만주만의 문학”을 주장하는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에 포섭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만주 로컬리티’는 여러모로 입론의 기반이 허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준(準) 식민지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던 만주의 장소성이 일제와 ‘만주국의 멸망으로 파멸되면서 ‘만주 로컬리티’의 허구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주장하던 작가들은 진정한 장소인 한반도로의 귀환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김창걸은 상기 지상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 『滿洲朝鮮文學과 作家의 情熱』이란 글을 통하여 만주조선인문학의 건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학의 생존환경이 척박함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그것은 勿論 우리의 文化程度의 低下와 우리의 經濟的 生活이 너무나 正常的이 못된 悲慘한 때문이란 理由도 업지 안흐나 民族이 있고 말이 있고 글이 있고 또 生活이 잇스면서 어찌 文學이 업슬 수 잇슬가 하고 생각할 때 아모래도 數三의 作家로 觀衆업는 演劇을 하고 잇지 안흐나 하는 甞심을 가지지 안홀 수 업다.¹²⁾

이어 김창걸은 『만선일보』가 만주조선인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김창걸은 만주조선인문학의 성격 규명에 있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김창걸이 위에서 예를 든 몇몇 사람들처럼 만주조선인문학의 로컬리티를 강조하고 있지 않

12) 황금성(黃金星), 1940년 2월 16일 자 『만선일보』, 「滿洲朝鮮文學과 作家의 情熱(上)」. 황금성은 김창걸이 만주시기 사용했던 필명 중의 하나이다.

는 것은 그가 일제의 주도 하에 놓여있던 만주조선인문학의 건설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주조선인문학의 로컬리티가 숙명적으로 일제의 만주담론에 포섭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아예 보류하면서 활약적인 작가였던 만큼 만주조선인문학에 대한 애착과 기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김창걸의 보다 명확한 이념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 보이지만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반일 의식이 뚜렷했다는 점에서 김창걸의 만주인식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창걸에게 있어 만주는 개인의 생존 혹은 생업을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투쟁의 장(場) 혹은 초월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창걸은 '만주 로컬리티'에 집착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이념적인 소신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Ⅲ. '새로운 마을'의 탄생

상술한 바와 같이 김창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계속된 정치풍파에 시달리면서 창작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1950년 1월 창작된 「새로운 마을」과 1953년 창작된 「행복을 이는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직후 창작, 발표된 작품으로 김창걸의 '국민상상'을 밝혀볼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새로운 마을」은 건국 이후 조선족문단에서 발표된 첫 번째 단편소설이었고 1951년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의 「신춘문예」에 입선되었다. 이 소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를 배경으로 어느 조선족마을의 촌장인 주인공 갑식이 마을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마을' 즉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갑식은 마을의 촌장으로 여타의 마을사람들에 비해 마을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국가의 시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한 술선수범하여 ‘새로운 행복한 마을’을 건설해 가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내세운 ‘새로운 마을’의 키워드는 두 개 - 집단주의와 문맹퇴치이다. 여기서 집단주의는 물질적인 행복을 이룩하는 수단이고 문맹퇴치는 정신적인 행복을 이룩하는 수단이 된다.

갑식은 우선 “남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지 않는 ‘사회주의집단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품앗이 즉 협동노동이었다. 갑식은 품앗이를 통해 낡은 시대의 소농의식(小農意識)에 길들여진 마을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전년도의 가뭄으로 집집마다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국가에서 내주는 창곡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갑식은 “새 중국이 우리 인민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허덕 나라의 신세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붙들여 쥐야 할 것과, 또 과거와 같이 창곡을 끼여주어 빚군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업의 길을 열어 주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¹³⁾ 등을 마을사람들에게 설명하여 품앗이로 진행되는 부업(副業) 노동이 “우리에게도 정부에도 이익인 이상 이 호소를 받들고 나가야”¹⁴⁾ 한다고 마을사람들을 설득한다.

부업 노동이 자리를 잡아가자 갑식은 또 ‘동학(冬學)’¹⁵⁾ 즉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한다. 젊은이들은 그런대로 따르는 편이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적인 수입과 직결된 부업 노동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척 소극적이었다. 갑식은 “글이란 팔아 먹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구, 더욱이 우리 글은 하자구만 들문 하루에두 될 수 있고, 늘게 잡았다야 한두달이문 안될게 없”¹⁶⁾하면서 우리글 공부가 쉬운 것이고 신문을 읽으면 “세상 리치를 환히 알”¹⁷⁾ 수 있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문에 이 마

13)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세전이별』, 연변교육출판사, 9쪽.

14) 위의 책.

15) ‘동학(冬學)’은 겨울철 학교라는 뜻으로 문맹퇴치 등을 목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한기에 실시했던 공부이다.

16)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19쪽.

17)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20쪽.

을 사람들이 부업 노동이 보도되어있음을 예로 든다. 이는 마을사람들의 행동이 나라 전체에 알려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나라에 대한 귀속감과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들의 '공동체 상상'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갑식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을의 부업 노동과 '동학'은 모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김창걸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4편의 작품 중 3편이 '마을'을 말하고 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의식은 벼농사라는 노동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조선인 특유의 가치관으로 당시 만주에 살던 중국인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의식을 심어주는 데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업과정에 개인과 국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김창걸 역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귀속감 혹은 정체성을 설교하는데 마땅한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마을'이란 바로 낡은 시대 및 그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에서의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새 중국"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말미에서 "“증산-부업-학습-행복-” 아무리 보아야 그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진 하나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¹⁸⁾라고 한 갑식의 희망찬 감회는 이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서술이 되겠다.

IV. '새로운 인간'의 자리매김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새 중국" 내에서 개인의 정확한 자리매김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과 경로를 다룬 「새로운 마을」

18)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36쪽.

과 같은 연장선 위에서 ‘국민 상상’을 진일보 구체화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상훈은 “정치적 품성”과 “과학(학문)실력” 모두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졸업 이후 직장의 통일배치를 두고 상훈은 고등학교 교원, 연구원,¹⁹⁾ 모교의 조교²⁰⁾ 등 세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상훈은 자기의 능력으로 봐서 당연히 조교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하고 “너무 자고 자대하다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에 취직지망을 쓸 때는 짐짓 고등학교 교원, 연구원, 조교의 순으로 거꾸로 써 바꿨다. 하지만 대학의 ‘통일배치위원회’에서는 상훈의 지망대로 그를 고등학교 교원으로 배치한다.

상훈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에서 교원을 하다 대학에 들어 온 사람으로 다시 교직에 돌아간다면 고등학교의 교원이 아닌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상훈 역시 “리론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수요에 선뜻 나서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²¹⁾지만 “아무리 생각했댔자 자기가 꼭 고중 교원으로 가는 것이 사회의 수요일리는 만무”²²⁾하다고 생각되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영예군인 출신의 일환이 조교로 남은 결과에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오른 상훈은 일환을 찾아가 비꼬는 말투로 따진다. 일환은 그런 상훈을 보며 “지식 분자²³⁾의 낡은 체면을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해방이 되었기에, 공산당이 령도했기에, 중국 혁명은 성공했고, 우리들은 신세를 초치였고, 따라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민족대학이 섰고, 우리 청년들은 당당한 인민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영광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오늘날 당당한 국가의 일터를 배치받고 나가는데, 이러한 행복에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²⁴⁾라고 상훈을 설득한다.

19) 연구원은 대학원생을 말한다.

20) 중국의 대학에서 조교는 강사 바로 아래의 직급으로 정식 교직에 해당한다.

21)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49쪽.

22)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49쪽.

23) 지식분자: 지식인.

24)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50-51쪽.

하지만 상훈은 설득되지 않았고 울적한 마음으로 대학에서 조직한 졸업 견학에 참가하여 베이징으로 떠난다. 베이징견학의 과정에 많은 졸업생들은 교원을 하기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배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참관(견학-필자 주)을 통하여 진정 ‘조국’을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리지적인 신념으로 전변되었다”고 고백을 한다. 졸업생들을 인솔한 담당 교수인 강선생은 학생들의 “졸업병” 즉 나름대로의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편향을 꾸짖는다.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요 어째서 행복한가, 누구 때문에 행복한가, 이 행복을 어떻게 지키고 보답할 것인가, 이것을 사상화시키면 문제는 다 해결이요 …… 우리는 지금 모주석(모택동-필자 주)의 령도밑에서 五억 인민이 한길 위에서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것이요!” 25)

상훈 역시 심적 갈등 속에서 점차 생각이 바뀌어 갔다. 국경절 경축대회에 참가한 상훈은 천안문을 행진해 지나면서 주석대의 모주석을 보는 순간 벽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뉘우치게 된다. 상훈은 일환을 보고 “일환이! 용서하우. 나는 행복에 겨워 정말 내 행복을 몰랐었소 …… 오늘 모주석을 뵈옵고 진정 내 위치를 알았요.” 26)라고 말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중국”의 ‘새로운 인간들이 행복에 대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새 중국”이 있어서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성장한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고 오늘날의 행복이 누구 때문에 얻어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호소한다. 나아가 행복을 가져다 준 그 ‘누구’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새 중국” 즉 새로운 국가의 당당한 일원임을 자각하고 굳은 일 좋은 일을 가리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또 행복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25)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56~57쪽.

26)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앞의 책, 61쪽.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창작된 김창걸의 소설 두 편을 살펴 보았다. 1950년대 초반 이후 작품이 거의 없었던 김창걸의 ‘국민 상상’은 이 두 작품으로 거의 끝난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적은 표본을 가지고 그의 ‘민족(ethnic group)’에서 ‘국민(nation)’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이 어쩌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로의 귀환이 아닌 만주에서의 정착이 상당한 정도에서 김창걸의 자주적인 선택이었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표본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일제의 패망은 조선의 해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른바 ‘조산’은 실제 즉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은 일본에 병탄될 때 봉건왕조였기에 해방된 이후 근대국민국가로의 전환을 겪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항일전쟁이 결속된 이후 중국 역시 ‘반식민지-반봉건(半殖民地-半封建)’국가에서 근대국민국가로의 전환을 겪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조선인들은 조선으로 귀환하든 중국에 남아있든 모두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광복’은 만주의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만주조선인과 중국조선족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광복’ 이전 만주조선인의 인구는 대체로 200만 정도로 본다. 새 중국이 건립된 뒤 처음 실시한 인구조사(1953년)의 수치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조선족인구는 1,120,405명²⁷⁾이었다. 다시 말하면 귀환한 사람과 정착한 사람의 수는 거의 대등하다. 이 귀환과 정착의 분화과정은 ‘광복’에서 시작하여 ‘6·25전쟁’까지 이어졌다.²⁸⁾ 귀환과 정착의 선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당시의 사회적 여건들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27) 이 수치의 정확도도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중국조선인의 국적문제를 처리할 때 관한 기본원칙은 1953년 8월에야 중국공산당중앙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중국조선족’이 만약 이미 중국국적을 획득한 중국조선인에 한한다면 이밖에 국적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한다.

28)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특히는 ‘대약진(大躍進)’과 ‘문화대혁명’ 초기 수만 명을 헤아리는 조선족들이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이는 ‘조선족’이라는 개념과 실체가 기본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일로 따로 논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숫자로 보면 연변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이 귀환을 선택한 비례가 평균보다 훨씬 적다. 통계에 의하면 1945년 '광복' 직전 연변지역의 조선인은 63.5만 명이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무렵 연변지역의 조선인은 51.9만 명이였다.²⁹⁾ 앞서 본 인구보편조사에 의하면 1953년 6월 30일 24시를 기준 하여 중국조선족인구는 1,120,405명으로 그중의 73.6만 명이 길림성에 살고 있었고 또 그중의 49만여 명이 연변에 살고 있었다. 즉, 연변지역의 조선인들이 귀환을 선택한 비례는 28%정도로 평균치인 50%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당시 연변의 상황을 통해 귀환과 정착의 선택에 준 사회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변은 조선인들이 가장 일찍 발을 붙인 곳 중의 하나이고 조선인의 인구비례는 줄곧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1934년 '만주국'에서 '간도성(間島省)'을 설치할 때 초대 성장(省長) 역시 조선인 이범익(李範益, 창씨명 淸原範益)이었고 뒤이은 성장(省長), 부성장(副省長) 또한 거의 조선인들이었다. 이러한 집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은 조선인들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차별을 극복하는데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직후 중국인들이 일제에 대한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변은 타 지역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했다.

둘째, 연변은 당시 중국에서 국공내전(國共內戰)을 겪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였다. 일제가 패망한 뒤 국민당은 연변에 발을 붙이지 못해 중국공산당의 통제범위에 속했다. 국공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에도 전화(戰火)는 연변에 미치지 못해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셋째, 연변은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토지개혁'을 가장 일찍 진행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1946년 7월부터 1948년 4월 사이, 세 단계에 거쳐 연변의 '토지개혁'은 완성되었다. 중국공산당의 토지정책은 일관적으로 중국 내 조선인들을 배척하지 않았는 바 중국 경내의 조선인들은 중국 '공민(公民)

29) 安龍禎 編, 1996, 『延邊朝鮮族自治州誌』, 中華書局, 276~277쪽.

임을 누차 천명하였다.³⁰⁾ ‘토지개혁’의 과정에 조선인들은 중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지어는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생산습관을 존중 받아 보다 많은 수전을 분배하였다. 절대다수가 농민인 조선인들에게 토지는 거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당은 조선인들을 ‘한교(韓僑)’로 규정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축출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국민당통제지역의 많은 조선인들이 공산당의 통제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예 귀환을 선택했다.³¹⁾

결론적으로 안정된 사회와 생업은 중국조선인들이 체류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조선인들의 만주이민의 주된 목적이 토지였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에게 속하는 토지를 얻게 되었을 때 만주라는 장소에 대한 귀속감은 비로소 가장 확실한 기초를 갖게 되고 김창걸이 그린 ‘새로운 마을’이 점차 실체화 되어왔다. 이 ‘새로운 마을’을 지키려고 조선인들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에 참가하여 국공내전에 투신하고 ‘6·25전쟁’이 폭발한 뒤에는 중국공산당이 제출한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구호에 보다 선뜻 응할 수 있었다.

“이곳의 땅은 우리의 땀으로 개척하였고 우리의 피로 지켜냈다”는 식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중국조선족의 정체성담론에 자주 보인다. 조선인의 손으로 개척한 땅을 조선인들에게 분여함으로써 그들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정도 성공하였다. 문제는 만주라는 장소와 땅이라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없는 지식인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수령과 같은 상징물을 내세운 ‘상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창걸의 ‘국민 상상이 기성세대인 농민을 두고

30) 1931년 11월에 있는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大綱)’에서는 “소비에트정권 영역 내의 노동자, 농민, 홍군사병 및 모든 노고민중(勞苦民衆)과 그들의家屬들은 男女, 種族(漢, 滿, 蒙, 回, 藏, 苗, 黎, 苗와 중국에 있는 臺灣, 高麗, 安南인 등), 宗教의 区分이 없이 소비에트법을 앞에서는 일률로 평등하고 모두 소비에트공화국의 公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1)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춘선의 「광복 후 중국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귀환」(『한국근현대사연구』 2004년 봄호 제28집)을 참조할 수 있다.

전개될 때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새로운 세대인 대학생들 두고
전개될 때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신, 2004, 「광복 후 중국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8집
신영철 편, 1941,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출판부
安龍禎 編, 1996, 『延邊朝鮮族自治州誌』, 中華書局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편, 1954, 『세전이별』, 연변교육출판사

투고일 : 2015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 Abstract ■

Nation Imagination in Kim Chang-geol's Short Stories after the Liberation

Cui, Yi

Kim Chang-geol has been left the distinctive effect on the Manchu-Korean literature and the Chinese Korean literature. First, his works were continuously published in the *Manseon Daily News*(滿鮮日報) and came to be recognized in literature. So his work of fiction has been included in *The Budding Earth*, which was the only collection of short stories in the Manchu-Korean literary scene. Second, Kim didn't return to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and this kind of behavior was rare in those times. After all, he turned over the "n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one member of the colonial ethnic group, the Manchu-Korean. His two short stories, *The New Village* and *The People Knowing Happines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se were published in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 and ethnic' group, the Korean Chinese(朝鮮族).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state imagination' and 'nation imagination' in Kim Chang-geol's works, including the analysis on the locality discourse in the Manchu-Korean literature.